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 / '4·3 수형인 재심' 어떻게 진행되나

# 이해당사자 신청... 위법성 입증 필요없어

군사재판 희생자 법무부와 협의해 일괄 재심 2년 넘게 걸리던 재판 소요 기간 단축될 듯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향후 '4·3수형인 재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르면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들은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일괄 직권재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일괄 직권재심을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은 제주지방법검찰청 검사에게 재심 절차를 수행토록 지시한다. 이어 해당 검사는 관련 선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재심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일괄 직권재심이 이뤄지면 기존에 개별적으로 재심을 신청하고, 신청자가 불복 구급과 고문 등 위법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앞서 개별적으로 재심을 신청한 4·3수형인들은 재심 개시를 통

보 받기까지 1년 남짓한 시간을 기다렸고,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는 2년이 넘는 시간을 소요해야 했다.

아울러 일괄재판 수형인의 경우도 '개별 특별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4·3수형생존인 재심과 형사보상, 국가배상 재판을 이끌고 있는 양동운 4·3도민연대 대표는 "특별법 개정으로 모든 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위법·불법성 입증 등 재심 절차가 수월해진 것일 뿐이고, 재심 신청은 생존자나 유족 등 이해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지 못해 재심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재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 등 후속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재심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 당시 일반·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330여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송은범기자

## “도가 독단적 입법예고... 의도 의심”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 조례안' 반발

제주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해 국가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조례안의 핵심 당사자이자 자치경찰사무 대부분을 수행하는 제주경찰청과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에 여러 차례 수정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제주경찰청과 협의 없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자치경찰단을 이용해 독립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대부분 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는 곧 치안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도민

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주도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핵심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감사와 감찰, 징계, 자치경찰규칙 사무제·개정까지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은 ▷제주경찰청장 의견 청취 의무화 ▷제주경찰청 파견 인원과 자치사무인력 비율 맞추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5일까지 제주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빠르면 오는 17일 열린 제3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은범기자

## 운전중인 버스기사 폭행 50대女 점유 2년

지법 "자칫 교통사고 유발"

버스기사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7시 3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B(58)씨

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서귀포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한 뒤 "일 끝 나면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면서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UV 전신주 들이받아 주변 33가구 정전 소동

SUV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주변 30여 가구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5분쯤 제주시 노형동 오도9길에서 코란도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A(23)씨와 동승자 B(23)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이 사고로 인해 전신주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주변 33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는 긴급복구반을 투입해 복구공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음주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강민성기자



드림타워 협력업체 비상협약체는 지난 2일부터 현수막을 내걸고 지급되지 않은 공사비를 문제 삼으며 농성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밀린 공사비 600억... 회사 부도날 지경”

드림타워 비상협약체 공사비 미지급 옥상 농성

10개 업체로 구성된 (가칭)드림타워 협력업체 비상협약체가 제주드림타워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드림타워 협력업체 비상협약체(이하 협약체)는 지난 2일 드림타워 공사비 미지급건과 관련해 투쟁에 돌입했다. 드림타워 꼭대기층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이들은 드림타워 38층에 올라 농성을 하고 있다. 38층으로 향하는 계단에는 철조망까지 설치됐다.

드림타워 협력업체 비상협약체 신

대호 사무국장은 "회사 자산도 팔고 대출도 받고 심지어 사채까지 빌려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지급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죽고싶은 심정"이라며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나서 죽으나 여기서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 죽을 각오를 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사비를 받지 못한 협력업체 10곳의 미지급금은 총 600억원에 이르고 협약체는 주장했다. 이중 지급 의무가 생기는 세금액산서를 발행했는데도 못 받은 미수금만

360억원에 달하며 현재 협의 진행 중인 금액도 24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관광개발 측은 "월정 시공업체인 중국건축과 협력업체 사이에 공사비 대금 산정이 되지 않아 제3의 기관에 객관적인 대금 액수 산정을 요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금 사용 금액 내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제출이 안돼 4차 연장까지 진행됐다. 현재까지도 다수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미제출돼 정산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3의 기관은 오는 7일까지 관계자들의 최종 의견수렴을 거친 후 15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제주지법 '개점휴업'

8명 전출·13명 전입 재판 대부분 연기돼

법원 정기인사로 인해 제주지방법원이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새로 온 판사들이 사건 파악 및 기일 지정으로 대부분의 재판을 연기한 것인데, 이달 중순쯤 정상적으로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자로 진행된 '2021년 상반기 법관 정기인사'로 제주지법에는 8명의 법관이 떠나고, 13명의 법관이 새롭게 들어왔다. 13명 중에는 휴직자 3명과 연수자 1명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법관은 9명이며, 이 가운데 신입 법관은 5명이다.

이로 인해 지난 2일과 3일 제주지법에선 단 1건의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같은 상황은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지난 2일야에 신입 법관 5명이 법원에 출근한 상황"이라며 "다음 주까지는 재판 일정 소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달 셋째주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페르카 효과**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달팽이추출물 핵심 성분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유효를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병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앞면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 하하농법 3월의 농사메모

- 키 위** ※ 해피한그린 1ℓ 25말 + 글로칼 1봉 25말 = 7일 간격 2회살포 → 형태적 화아 분화
- 만감류** 레드향 · 천혜향 · 한라봉
  - 보조 가온전 3일 동안 물을 충분히 준다
  - 꽃눈이 보이면 해피한그린 + 글루칼을 7일 간격 2회 살포 해준다
- 양파**
  - 비대와 냉해방지를 위해 썰파고 + V패스 + 히토락 + 천연가리를 15일 간격 2회 살포한다 (살균제는 따로 쓸 필요가 없다)
- 마늘**
  - 해빙기에 무름병 방지를 위해 썰파고 + V패스 + 히토락 살포

“하하농법으로 농민들이 하하웃는 그날까지”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